

## 너희가 새로 나지 않는다면...

1698. 사랑할 줄 아는 새 인종...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끝없는 지평선을 바라보다 두 눈이 타버린 새 인종! 이들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 온 세상을 끌어 안습니다.

1699.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다시 시작합니다. 나는 그대가 새로운 열정, 새로운 충동, 새로운 힘, 새로운 현실, 그리고 영혼의 새로운 갈망으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보았으면 합니다.

1700. 하느님은 당신께서 부르신 이들, 당신 사랑의 인장으로 새기신 이들에게 이렇게 원하십니다. 하느님의 지나가심은 너무나도 결정적이기에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 시키십니다. 그대는 갓 태어난 것입니다.

1701. 새로운 삶의 장이 시작됩니다. 똑 같은 힘, 똑 같은 동기. 똑 같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지만 무언가 새로워진 삶이 시작됩니다. 이는 점점 짙고 강하게 다가오는 하느님의 새로운 요구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강도가 새로운 삶에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에서, 정교함에서, 헌신에서, 깨어지지 않는 충실에서 강도

를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새로움입니다. 좀 더 강하고, 순수하고, 하느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랑의 새로운 단계로 뛰어 오르는 것입니다.

1702. 그대는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간의 새로움은 진리와 기쁨입니다. 마지막 결과 까지 책임지는 진리, 그대 존재 전부가 씻겨지는 기쁨... 그대의 가장 아픈 부분 까지도 씻겨지는 기쁨입니다.

1703. 사랑의 신비들로 엮어진 역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느 날 하느님께서 아주 작은 실들로 그대의 역사를 엮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엮어진 실 뒤에는 헤아릴 수 없는 성체의 신비, 죽음과 구원의 신비가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수고와 대가와 고통이 그 안에 숨어 있는지...!

그 삶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토록 힘겨웠던 수고가 하나도 아깝지 않은 새로움의 신비, 영원한 새로움의 심오한 신비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대 마음이 얼마나 새로워져야 하는지 깨달았습니까? 이는 하느님 신비의 불 앞에서 젊음을 되찾은, 새로워진 마음의 비밀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 마음의 고통, 영혼의 미소, 그분 앞에 마주선 그대의 눈길, 새롭게 변화된 그대의 삶, 모두가 새롭습니다!

1704.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갈망 밖에 다른 것은 염두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과거의 삶을 돌아 보지 않으신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만일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바라본다면, 이미 그분께서 다 태워버리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대에게 주어진 이 유일한 순간에 정열을 다 쏟으십시오. 현재, 이 순간 말입니다.

1705. 하느님의 시계는 언제나 하나의 시간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용서와 자비, 그리고 사랑의 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계바늘은 여전히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가 어떻게 이 시간을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706. 뒤를 돌아다보지 마십시오. 과거의 모든 순간과 행동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대담함과 용기를 지니십시오. 그대 넘어짐들까지도 태우십시오. 타고 남은 그 잿더미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이 출현할 것입니다.

1707. 하느님은 언제나 새로운 분이시며, 이 새로움 안에 그대의 새로움이 있습니다.

사랑과 생명, 열정과 헌신 앞에 열려 있는, 새로운 마음을 지닌, 새 사람이 된 그대를 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1708. 배에 오르는 순간, 그대의 모든 과거는 사랑의 바다 속에 묻혀 버리고 하느님 안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새로 태어나십시오! 뒤를 돌아다보지 마십시오. 그리

고 아무도 그대의 과거를 돌이키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갓 태어난 삶이니 과거란 없습니다. 이제 살기 시작한 경이로운 현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1709. 하느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결코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갈망을 심어 주실 뿐입니다.

1710. 예. 저는 또 다시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당신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십니다.” 누더기 같은 저의 모습은 저의 궁핍함을 말해주고, 당신의 포용은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의 과거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당신의 사랑입니다.  
저의 비천함과 당신의 자비...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711. 지금 이 시간은 그대에게 중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종이에 쓴 문자로 남겨 둔다면 영원히 그것을 잃어버릴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삶으로 바꾼다면 이 시간은 하늘까지 이어지는 결코 끝없는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한 순간도 잃지 말고 문자 하나, 하나를 생활로 옮기십시오. 이는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지금 이 첫 걸음으로 하느님 안에 영원토록 고정되고, 그 다음 걸음으로 영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날마다 사랑 안에 확실하고 굳센 발걸음을 내디려야 합니다.

1712. 그대는 새 사람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름더미로부터 새로운 꽃, 새로운 씨앗, 새로운 화초가 피어날 수 있음을... 자신을

거름더미로, 쓰레기로 여기십시오. 바로 그 쓰레기 더미 안에 신비스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성실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티끌에 까지 내려가는 겸손... 어둠 속에 앉으십시오. 바로 그리로부터 새 창조물이 나올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713. 하루하루는 유일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하루입니다. 앞으로 올 날도, 지나간 날도 아닌 이날, 이 시간을 사십시오. 그제도 어제도 아닌 오늘, 과거가 아닌 바로 지금, 그대의 두 손에 들려있는 이 새로운 시간을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 이에 수반되는 은총과 어려움 그리고 사랑의 요구를 살아가십시오.

1714. 그대는 다른 세상으로 들어 왔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비할 데 없는 풍요로움만이 남아 있습니다.

불타는 태양이 모든 것을 태우고 있는데. 호롱불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1715. 그대는 빛의 소식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증인입니다. 지난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그대의 하느님은 영원한 오늘의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사랑의 새로움으로 날마다 '오늘'을 창조하십니다.

1716.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싹터 나오는 그리

스도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분의 신비 속에 잠겨 들으십시오. 새로운 수녀로 탈바꿈할 것이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1717. 성령강림, 성령의 불길이 내려와 모든 것이 태워지고, 변화되고, 신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